



6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 회담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정부는 인도적 대북 지원하라”

종교인들 남북문제 해결에 한 목소리... 527명 서명 동참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6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정상 회담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종교인들이 남북정상회담을 직접적으로 촉구한 최초의 일로, 남북 경제 관계가 극악에 다다랐음을 보여줬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 KNCC 전 회장 박경조 대주교, 천도교 이창변 총무원장,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다 스님, 인드라마생명공동체 공동대표 도법 스님, 세계복음주의연맹 의장 김상복 목사, 은혜심기운동본부 본부장 김성호 교무,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대북담당 김훈일 신부 등 50여 종교지도자들이 동참했다. 종교인들은 성명서에서 “6·2 지방 선거 결과로 봤을 때 국민 대다수는 현 정부의 대북강경일변도 정책을 강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남북정상이 직접 만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 국군 포로

와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문제 등을 협의의 등 얻을 것을 제안했다. 또 이들은 “1990년대 후반기와 같은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봉착해 많은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남북 군사 대결 구도로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함으로써 북한 동포들은 남북 갈등의 최고 희생자가 돼 아사 직전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최근 북한의 사정을 설명했다.

종교인들은 “동포애를 바탕으로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남북 교류 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 전면 중단 정책을 즉시 철회 하고, 지금 당장 인도적 대북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북한 주민의 고통을 신속히 해결하라”고 호소했다.

종교인들은 성명서 마지막에서 “종교인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의 선도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가슴 깊이 뉘우치고 참회한다”며 “민족통일을 위한 일꾼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제물들이 되기를 엄숙히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본 법륜 스님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개성공단을 제외

하고는 일체 중단됐으며,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식량 문제를 국가에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밝히고, 화폐개혁 실패, 남북경색관계가 지속 등으로 북한 주민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며 “90년대 후반과 같은 대량 아사 사태가 발생하는 데 대해 종교인들의 책무를 느끼게 됐다. 국도로 악화돼 가는 식량난을 위해 종교인들은 남북 갈등을 전제로 치닫는 상황에서 남북 포괄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성명서 남쪽에 앞서 5대 종교인들은 남북화해와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종단별 입장을 발표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법다 스님은 “이명박 정부 들어 평불협이 설립한 사리원 평양과 황해도 사리원 국수 공장의 기계는 녹슬어가고 있다”며 “먹어야 한다. 부처님도 먹어야 한다. 통일만 바이다. 밥이 통일이다. 밥이 하나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천도교 이창변 총무원장은 “민 훗날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주민들이 ‘동포가 굶어 죽어갈 때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볼 때는 대응책이 없다. 식량지원을 통해 화해와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의장 김상복 목사는 “한반도의 안경을 구하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대결과 전쟁이 아니고 평화의 추구”라며 “정부가 나서서 고난에 처한 북한 주민을 순수한 동포애로 끌어안아야 한다. 마음의 통일은 우리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대북담당 김훈일 신부는 “정부가 대북 지원에 유연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유엔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 책임을 물어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에 서명한 종교인은 개신교 122명, 불교 108명, 원불교 81명, 천도교 150명, 천주교 66명 등 총 527명이다. 서명인 중 개신교계에서는 소망교회 원로 박선희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조용기 목사 등 보수기독교 단체도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불교계에는 불교환경연대 대표로 수경 스님이 포함돼 있으며,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교육부장 법인 스님, 조계종 종회의원 도문, 오심, 의연, 일문, 정범 스님 등 5명이 서명했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종단에 통일교 운영방안 참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통일교 문형진 세계회장 만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11일 서울 용산 통일교 세계본부교회를 방문해 문형진 세계회장을 만났다. 이날 총무원장스님의 통일교 방문은 문형진 세계회장이 스님의 취임식,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등 2차례 예방해 초청한 것을 수락해 이뤄졌다.

자승 스님은 방문 전 통일교 측에 통일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이날 방문에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를 계열사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스님은 “조계종단 경영 책임자로서 통일교의 성장에 자극받았다. 신도 시주금 중심의 종단 살림에 통일교의 통일교를 운영방안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스님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최근까지 10여 차례 이상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유



6월 11일 서울 용산 통일교 세계본부교회를 방문한 자승 스님(오른쪽)이 문형진 세계회장(왼쪽)으로부터 시설을 안내받고 있다. 사진제공=통일교

교, 천도교 등 이웃종교인을 만나왔다.

조계종 관계자는 “총무원장스님의 종교간 소통 마인드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 종교간 화합과

균형을 유지한다는 차원을 넘어 이웃종교에서도 배울 점은 배워 종무에 반영하겠다는 실용적인 자세”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 창립

“불보살정신으로 경제 버팀목” 발원

불교계를 대표하는 경제인 25인 주축이 돼 결성된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가)가 6월 1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한국불교의 중흥과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도덕 경영 실천을 통한 경제부국 건설, 청년 불자 양성 등을 기치로 1년여 동안 창립준비에 힘쓴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는 주시회사 ‘자연과 사람’ 구자선 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인사들이 다수 고문단으로 참여했다.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자비정신의 구현사업, 불교 경제 원리의 연구 및 보급사업 등을 통해 불보살정신으로 한국경제에 버팀목이 될 것을 발원했

다. 또 수익의 일부는 포교활동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는 전국 광역지역의 경제인 불자들을 중심으로 시·군·구 조직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경제인 불자 양성 지원 등도 목적사업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에서 “지금에 어느 때보다 불교의 역할, 사회적 기여에 대한 요청이 높고 있다. 종단과 함께 발맞춰 가면서 불교와 사회에 기여하는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가 돼 달라”고 말했다.

행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오영교 동국대 총장과 조창희 문화체육관광부 총무실장 등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선주 기자

“문수 스님 추모사업

적극 나서라”

불교단체 대표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만나 문수 스님의 추모사업과 수경 스님의 승적 반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 것을 주문했다.

인드라마생명공동체 도법, 실천불교승가회 퇴휴, 불교미래사회연구소 법안, 불교환경연대 지관 스님, 참여불교재가연대 정용기 사무총장 등은 6월 17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불교단체들은 “문수 스님 추모사업 과정에서 빛어진 갈등이 수경 스님의 승적반납으로 이어졌다”며 사회부장 경질까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불교단체의 요구에 총무원장스님은 “현안이 많으니 (수경 스님이 돌아와) 회향해줬으면 좋겠다. 문수 스님 추모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14 선지식-지성 스님 ▶4 인터뷰-일목 스님 ▶9 현장-‘법화경’ 사경대회 ▶16 강의-향봉 스님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5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속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아름다운 등

* 주름등 · 중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중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만 (물질이 기화하여 변형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 경제성 비교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가로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7kw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